

# '일상'의 복원과 대중의 감수성 반영

## 베스트셀러로 본 90년대 문학출판

한 시대의 문학베스트셀러는 대중의 상상력과 감수성이 어느 지점에서 작동하는지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다. 80년대 문학이 '이념'과 '역사'라는 거대서사를 정점으로 움직였다면, 90년대 문학은 '일상'과 '소비문화'의 미시서사로 허강했다. 성과 사랑이라는 고전적 주제 외에 여성의 정체성, 민족주의적 감수성, 흔들리는 부권과 가정에 대한 복고주의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점령했다.



90년대 문학은 '일상'과 '소비문화'의 미시서사로 대표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점령했다.

특히 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이우혁의 《퇴마록》은 문학출판의 개념을 바꿔놓은 혁명적 사건으로 기억될 만하다. 컴퓨터 통신시대의 급부상이라는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이 작품의 상업적 성공은 90년대 중반부터 대량소비문화가 문학출판의 블록버스터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 사이버문단으로 등단한 무명작가들이 대중들의 기호를 민첩하게 상품화함으로써 기성문단을 위협하는 양상이 심화됐다.

### ■ 최고 베스트셀러는 《무궁화꽃이 ...》

90년대 통틀어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약 450만부가 팔린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해냄)였다. 저명한 핵물리학자 이휘소의 의문사를 추리소설 기법으로 그린 이 책은 93년 말에 발간됐지만 94년 연초부터 한국사회를 뒤흔든 북한 핵문제, 한반도 전쟁위기를 등과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핵무기급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김진명은 지난해에도 《하늘이여 땅이여》(해냄)로 베스트셀러 작가의 진가를 발휘했다.

90년대 초반은 고전에 '소설' 이름을 붙인 역사인물 소설이 독서시장을 휩쓸었다. 91년부터 92년까지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창작과비평사), 이재운의 《소설 토정비결》(해냄), 황인경의 《소설 목민심서》(삼진기획) 등이 100만부를 돌파하는 괴력을 보였다. 이 소설들은 역사적 객관성이 결여된 채 소설적 상상력만으로 역사인물을 복원했다는 비판도 거뒀다. 결국 2년의 영화를 넘기지 못하고 곧 독자들의 관심권에서 사라져 버렸다.

90년대 후반기에는 해체돼가는 부권의 실상을 소설화한 김정현의 《아버지》(문이당)가 200만부를 판매하는 폭발적 인기를 모았다. 96년과 97년의 서점가를 뒤흔든 이 소설은 명예퇴직으로 사회에서도 소외당하고 부권의 상실로 가정에서도 설자리를 잃어가는 아버지들의 서글픈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90년대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모두 무명작가라는 점이었다. 기존 문단에는 편입

되지 못한 이들은 평단의 싸늘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대중들의 취향과 감수성을 재빠르게 간파함으로써 공전의 히트작을 터뜨린 것이었다.

소설분야에서 여성작가들의 활약이 눈부셨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90년에는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삼진기획)와 신달자의 《물위를 걷는 여자》(자유문학사)가 베스트셀러 종합 2,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92년부터는 양귀자와 공지영이 발표하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 수위에 올랐다.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천년의 사랑》·《모순》(살림),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문예마당)·《고등어》(웅진출판)·《착한 여자》(한겨레신문사) 등이 손꼽힌다.

남성작가의 작품으로는 '우리 것 찾기' 열풍을 몰고온 이청준의 《서편제》·《축제》(열림원), 정조대왕 독살설을 추리소설적 기법으로 묘사한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세계사), 패미니즘 공방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이문열의 《선택》(민음사) 등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서편제》·《축제》·《영원한 제국》 등은 모두 영화화돼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또 하나 소설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이 베스트셀러의 보증수표가 됐었다는 점이다. 91년 조성기의 《우리시대의 소설가》부터 99년 이상우의 《내 마음의 옥탑방》(문학사상사)까지 수상작과 함께 우수 중단편을 모은 이 수상집은 중단편 문학의 정수만을 모음으로써 고급 문학독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줬다.

90년대 문학출판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중의 하나는 외설시비 논쟁이었다. 92년 마광수의 《즐거운 사랑》과 96년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외설논쟁에 휘말려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구속되는 법정사건으로 비화했다. 문학작품을 도덕과 실정법의 잣대로 재야 하는가 하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이 사건은 문학교현 자유의 한국적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 ■ '통속시집'의 이상열기 현상

90년대 가장 잘 팔린 시인으로는 류시화, 이정하, 최영미를 손꼽을 수 있다. 명상소설 번역작가로서 널리 알려진 류시화는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푸른숲),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열림원) 등으로 80년대 서정윤의 《홀로서기》 이후 밀리언셀러 시인으로 기록됐다. 이정하의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푸른숲)도 여린 감수성의 세계를 선보여 청소년 독자층의 발길을 끌었다.

순수시단에서 가장 풍성한 화제를 몰고온 시집은 94년 베스트셀러 종합 3위를 기록한 최영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창작과비평사)였다. 50만부를 상회하는 판매고를 올린 이 시집은 평단으로부터 "과감하고 솔직하게 문학 속에 성을 끌어들이었다"는 우호적 반응과 "치졸하다"는 비난 등 양면적 평가를 받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문학성을 갖춘 '정품'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90년대 전반에 걸쳐 문학적 이력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시인들의 '통속시집'이 이상열기를 띠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은영의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욱더 마음 절이는 것은 작은 웃음이다》(박우사), 고은별의 《마지막이란 말보다 더 슬픈 말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성원), 원태연의 《년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나는 가끔 가다 판 생각을 하지》(영운기획) 등이 그 예로, 언어유희에 가까운 소녀취향의 연시가 베스트셀러의 주류를 이뤘다.

90년대에 가장 '알짜장사'를 한 문학출판사로서는 해냄, 열림원, 푸른숲, 문학사상사, 살림, 창작과비평사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80년대 민족문학의 전위로 맹위를 떨쳤던 창작과비평사는 90년대 들어 인문학과 시·소설분야에서 밀리언셀러를 연달아 터뜨림으로써 발전적 변신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 박천홍 기자